



CONTENTS

- 비즈니스 기능 강화한 지도 애플리케이션 -----3p
- 블록체인과의 결합으로 확대되는 위치기반서비스 -----5p
-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위치정보 -----7p
- 주요 언론 동향 -----9p





비즈니스 기능 강화한 지도 애플리케이션

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

네이버, 구글의 지도 애플리케이션,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

▶ (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) 지도 API를 통해 기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

-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손쉽게 접목 가능
 - 2018년 10월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'데뷰(Deview) 2018'을 통해 기존 '지도 오픈 API'를 확대 개편한 '엔터프라이즈 API'를 공개
 - 11월 개편된 '지도(Maps)'는 길찾기(Directions), 장소 검색(Search Places) 등 기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추가로 제공
 - 최대 Pol¹⁾ 데이터를 갖춘 네이버 지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, 물류, 관제, 통신,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 - 향후 네이버랩스의 'Location API · SDK' 등을 추가로 오픈하여,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

▶ (구글)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을 강화한 '구글 지도'

- 기업의 마케팅 비즈니스에 활용 가능한 메시지 및 알림 기능 추가(2018년 11월)
 -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'메신저 기능'을 도입하였으며, iOS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
 - 기업들은 추가된 메신저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제품 주문, 재고 문의, 서비스 관련 문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, 고객 민원 관리를 비공개로 처리가 가능해 스팸어나 악플러들은 해당 정보 활용 불가능
 - 고객팬이 기업의 위치를 '팔로우'하고 특별 행사 등 기타 정보를 알림 받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, 업데이트되는 모든 정보들은 모든 팔로워들에게 '포 유(For You)'탭을 통해 제공
 - 또한, 새로 추가된 '그룹 플래닝'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방문 기업 리스트를 목록화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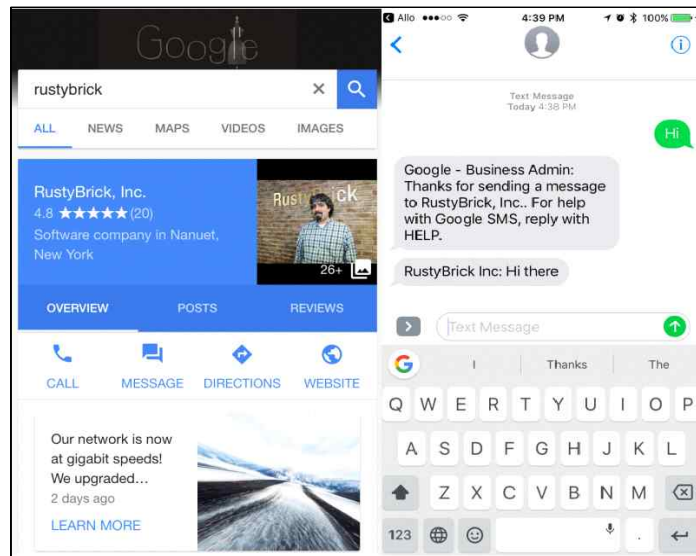
1) Pol(Point of Interest): 특정인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 세계 또는 지도나 도면상의 특정위치, 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목표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로 주변 건물의 위치정보



그룹과 공유함으로써 그룹 모바일 플래닝 가능

- 그 외에 기업들은 스트리트뷰(StreetView)의 '내부 지도'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정보도 제공할 수 있으며, 스트리트뷰의 AR 기능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

그림 1_구글, 구글지도에서 메시지 기능 구동 화면



출처 : SearchEngine

Reference

1. ZDNet, http://www.zdnet.co.kr/news/news_view.asp?article_id=20181114165851&type=det&re=zdk
2. ITWorld, <http://www.itworld.co.kr/news/111534>



블록체인과의 결합으로 확대되는 위치기반서비스

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

블록체인 기술 활용 위치정보 수집 및 관리를 통한 데이터의 보안성 확보 기대

▶ (IBM) 증강현실(AR)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, 이용자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위치기반 특허 출원

- 허가되지 않은 지역 침입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A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술 개발
 - '빅 블루(Big Blue)'라는 특허 기술은 AR 게임 실행 시, 사용자와 실제 물리적 위치 간 안전한 경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, 이는 AR 게임에 구현된 모바일 기기와 위치정보를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하여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구현
 -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게임을 즐기는 AR 게임 플레이어가 타인의 사적인 공간이나 일반 대중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▶ (제너럴모터스(GM))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관리 솔루션 특허 공개

- 해당 특허 기술은 자율주행차 데이터 관리에 활용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직간 안전한 데이터 전달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
 -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자들은 온라인 블록체인에 저장된 지역 내 차량 정보와 위치정보를 서로 상호 공급받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 -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은 안전한 정보공유를 통한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, 법적 기록에 대한 정보공유, 목적지 탐색이나 충전 연료 서비스 이용, 택시 등 영업 차량의 인허가 타당성 판단, 요금소 정보제공에도 활용
 -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(NHTSA)으로부터 안전하게 얻은 다양한 정보를 클라우드에 블록체인 원장 형태로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, 고속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과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
 - 해당 시스템에 입력되는 다른 데이터는 차량 움직임이나 운전자 거동, 교통 규칙 준수 여부, 운전자 능력 관련 정보 등이며, 생성한 온라인 블록체인 원장에 갖춰진 자율주행차량 이용자의 행동 특성 관련 데이터 등을 저장함



▶ (압컴퍼니) 블록체인 기반 기내 쇼핑 플랫폼 서비스 구축

- 기내에서 주문과 배달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'쇼핑 플랫폼' 시범서비스 제공(2018년 12월)
 - '스카이채널아시아'와 업무협약을 통해 '압스카이TV(YAPSKY TV)' 브랜드 출시
 -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없는 국내·외 저비용항공사(LCC)를 대상으로 ▲압(YAP) 브랜드를 사용한 기내 쇼핑 서비스 압 스카이몰(YAPSKY Mall) 구축, ▲멀티미디어 서비스 위치 등 항공기 정보제공 서비스 ▲ 판매 물품 기획 및 운영 ▲ 기내쇼핑 결제를 위한 가상화폐 '압스톤' 사용 지원 ▲ 판매 제품 배송 등의 원스톱 쇼핑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
 - 해당 서비스는 저가항공기에 마련되지 않은 개인형 모니터 대신 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기내 콘텐츠 서비스를 항공기 실내 Wi-Fi를 통해 이용 가능
 - 부가적으로 Wi-Fi에 부착된 IoT 비콘을 통해 개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스마트폰에 표시된 좌석 배치도로 콜 버튼을 누르거나, SNS를 통해 승무원이 어느 좌석에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는지 확인 가능
 - 현재 기내 신용카드 결제는 가결제를 통해 진행되지만,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가상화폐인 '압스톤'으로 결제가 가능하며, 압컴퍼니의 배송서비스인 '스파이더압'을 통해 물품 수령 가능

Reference

1. 서울경제, <https://decenter.sedaily.com/NewsView/1S72KR8M0Q>
2. 테크레시피, <https://techrecipe.co.kr/posts/5077>
3. 시사뉴스, <http://www.sisa-news.com/news/artide.html?no=116170>



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위치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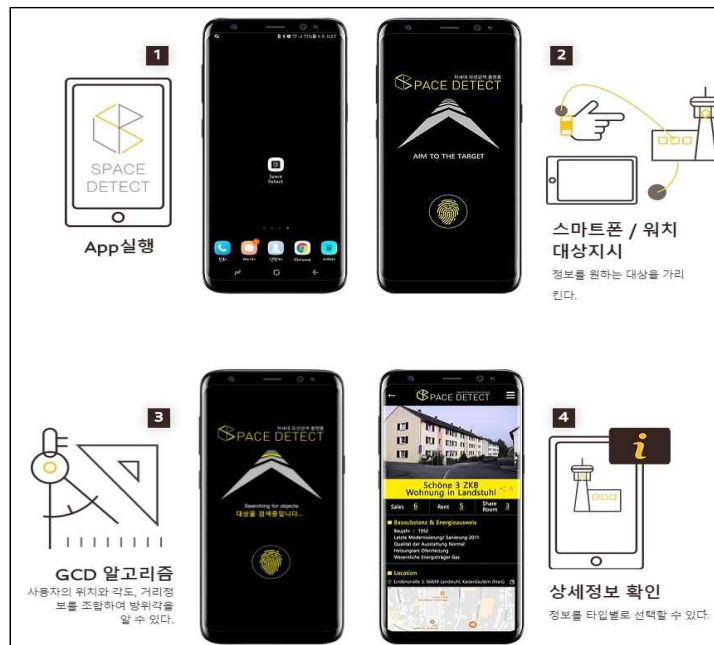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

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위치정보 활용 사례 증가

▶ (LBS Tech) 모션을 통한 검색으로 주변 장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검색 플랫폼 'Space Detect'

- 손쉬운 정보 검색 방식으로 정보 소외계층도 쉽게 주변 장소 정보 이용 가능
 - 키워드 없이 검색하는 방식을 통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, 외국인 등 정보의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
 - (서비스 핵심 기능) 스마트폰으로 눈앞의 대상을 가리킨 채 서비스상의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건물을 인지해 상세 정보는 안내해주는 기능인 '대상검색 모드(Detect Mode)'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관광지 위치를 애플리케이션 화면상에 핀(Pin) 형태로 표시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'주변검색 모드(Radar Mode)' 제공

그림 2.Space Detect 작동 순서도



출처 : LBS Tech



▶ (서울시) 노약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길찾기 서비스 개발 추진

-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'따릉이' 이용 활성화를 위해 '교통약자·따릉이 길찾기 서비스' 제공 계획
 - 2018년 9월,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위치정보, 저상버스 정보, 버스 혼잡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, 네이버랩스는 이를 활용해 지하철 실내지도로 구축하여 실내 경로 안내 기능 개발 예정
 - 해당 기술을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교통약자도 지하철 역사 실내에서 보행을 위한 동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, 노약자나 장애인, 영유아 동반자, 관광객 등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이와 함께, 대중교통 길 찾기 서비스에 공공자전거 '따릉이' 정보를 접목하여, 단거리 이동은 도보·공공자전거 단독 경로를, 중거리는 공공자전거와 타 수단을 통합한 경로 검색 가능

▶ (어뮤즈트래블) 여행지에서의 동선 정보 제공하는 장애인 이동 내비게이션 '휠고(WheelGo)'

- 여행지 Po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시설 정보 및 이동 경로 정보제공
 - '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' 자료에 따르면, 적절한 출입문 폭을 가진 장애인용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숙박시설이 24.5%, 경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관광지가 30%로 편의시설 이용 등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여행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및 기업 자체적으로 누적·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지에서의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이동 경로 정보제공
 - 현재는 오프라인 자료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, 해당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, 휠체어 내비게이션과 지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

Reference

1. 헤럴드경제, <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81107000373>
2. 뉴시스, 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80904_0000408580&clD=10801&plD=14000
3. 이투데이, <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616157>



■ 주요 언론 동향 ■

- 산업부 “배달로봇·무인선박 실증 등에 규제 특례 적용”
- <http://news.kbiz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8080>
- LG유플러스, 드론으로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지역 정밀 점검 시연 성공
- <https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753498&kind=2>
- 전국 최초, IoT안전장치 제주 버스에 도입
- <http://www.jejutwn.com/news/article.html?no=14262>
-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시작... 17일 본격 서비스 돌입
- <https://kbench.com/?q=node/194114>
- 자율주행이앙기, 일본서 상용화
- <https://www.nongmin.com/news/NEWS/ECO/WLD/303747/view>
- 아동 개인정보 함부로 못쓴다... 부모확인 의무화
- <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8121010203110835>
- 블랙박스도 연결의 시대로... 내년 ‘NB-IoT’ 경쟁 본격화
- <http://www.ddaily.co.kr/news/article.html?no=175558>
- 구글 웨이모,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...韓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로 낙점
- <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181206150043399>
- SKT 티맵 택시 기사 10만명 가입... 배차 성공률 3배 ↑
- <http://www.dailian.co.kr/news/view/753987/>



발행일 2018년 12월 14일

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

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.5118

- ▶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,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▶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,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